

꽃과 화장실의 만남

편집부

「국제 꽃 박람회」장소로 유명한 일산 호수공원에 화장실 전시관 계획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실무담당자를 만나 전시관 건립계획을 들어본다.

사업추진 배경

경기도의 관광특수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고양시 화장실 전시관」을 건립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불편사항으로 인식되어 오던 공중 화장실을 모범적으로 시설하고 화장실의 변천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을 통하여 생활 공간으로서의 인식전환과 구리시의 청결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도비 50%를 지원 받아 오는 9월에 시작하여 2001년 3월에 완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전시관 규모와 전시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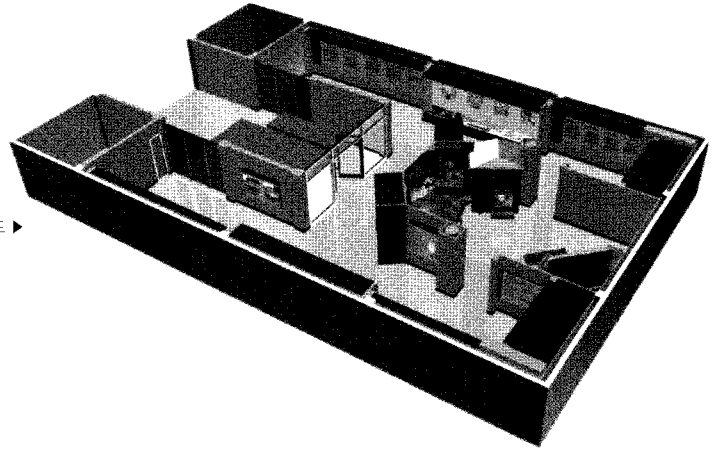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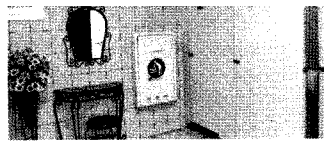
호수공원내 무궁화 동산 앞에 세워질 전시관은 연면적 124평(공중화장실 33평 포함)에 8억 7천만원(화장실 건축비 포함)의 예산규모로 예상보다 작은 규모에 다소 실망스럽지만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하려는 실무자들의 설명을 듣고 위안을 가졌다.

주요 전시연출 계획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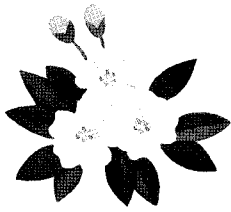
전시관의 목적과 방향을 시작으로 동·서양 화장실 변천사 및 관련유물(모형포함), 체험 공간, 세계의 이색화장실 사진 및 영상실을 설치하고, 특히 정보 검색실은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8개 나라에 소재한 화장실의 역사와 문화를 설명하고 보편적인 화장실과 공중화장실, 그리고 특징적이고 이색적인 화장실의 내용을 터치 스크린으로 제작하여 상영한다.

테마박물관 규모로 확장되어야

「시민들은 휴식공간에 조형물이 자주 들어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실무자의 설명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박물관은 다른 건물이 들어서는 것과 달리 휴식공간을 크게 해치는 것이 아니고, 국내 최초로 건립되는 반지하형 전시관을 1층만이라도 올려 2층 정도 공간



고양시 화장실 전시관 입체 내부도 ▶



확보를 하여도 좀 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즘에는 「식사와 배설을 동등한 개념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점차 화장실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 같다. 「화장실 박물관과 국제 꽃 박람회의 만남」 그 자체만으로도 고양시의 수준 높은 문화의식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느꼈다.

호수공원을 돌아보며

잘 가꾸어진 호수공원에 텅빈 전시공간, 옆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그 용도를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1년에 1회 국내 꽃 박람회와 2년에 1회 국제 꽃 박람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2000 고양국제꽃박람회」의 전시기간이 12일인 것을 감안하면, 상식적으로 꽃의 특성상 전시기간은 준비과정을 포함하여

도 1개월을 넘기 어려울 것이다.

1년 동안 전시관을 유지·관리하는데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텐데, 아직 국내에는 없는 화장실 용품 상설전시관으로 사용하고 관련업체에서 일정부분 관리비를 지원받는다면 「예산절감과 함께 고양시가 화장실 문화의 선진도시로 이미지를 높이는 일석이조(一石二鳥)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일산 호수공원은?

동양 최대의 31만평 규모인 호수공원에는 9만평의 호수와 수변광장, 인공섬, 자전거전용도로, 야외식물원, 단정학 사육장등 많은 시설을 갖추고 있어 수도권의 새로운 휴식처로 각광 받고 있다.